

# 강진군, 민선 8기 첫 확대 간부회의 개최

강진군은 지난 4일, 강진원 군수 주재로 실과소장 및 읍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강진군청 대회의실에서 민선 8기, 첫 확대 간부회의를 개최했다.

강진원 군수는 “소통하면 서로 연결되고, 공감하는 분위기 속에서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다.”며 부서별 업무 보고 시, ‘소통’이나 ‘인구’와 관련된 정책에 집중적으로 파고들며, 현황 파악을 이어갔다.

강 군수는 “현안 업무 보고 시 부서장이나 팀장은 물론, 반드시 실무 담당자를 배석하도록 해, 실제 일하는 직원들과의 긴밀한 소통 시스템을 만들어, 민선 8기 비전이 현장에서도 고스란히 녹아들도록 하겠다.”며 현장 위주의 균정을 예고했다.

특히, MZ세대와의 적극적 소통으로 미래의 변화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젊은 세대를 이해할 수 있는 여유와 기회를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또, 실제 강진군에 거주하는 주민의 주소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인구 정책을 새롭게 정립할 것을 지시하고, 민선 8기 공약 사항인 소상공인 희망재단(가칭)을 빠른 시일내 설립해 관내 소상공인에 대한 전반적인 육성·지원을 서두를 것을 주문했다.

유가 폭등의 해결책으로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 범위를 확대 검토를 당부하고 7~8월 폭염, 태풍, 홍수 등 재난 재해를 대비해 사전 점검 강화와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관계 형성 등 효과적인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강 군수는 “민선 8기의 새로운 정책들은 민간전문가의 철저한 진단과 자문을 거쳐, 오류를 최소화해, 집행 이전까지는 서두르지 않고 간간하게 점검할 것이지만, 계획 수립 이후에는 금광석화로 신속하게 집행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종욱 기자



강진군은 지난 4일, 강진원 군수 주재로 실과소장 및 읍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강진군청 대회의실에서 민선 8기, 첫 확대 간부회의를 개최했다. 강 군수는 부서별 업무 보고 시, ‘소통’이나 ‘인구’와 관련된 정책에 집중적으로 파고들며, 현황 파악을 이어갔다. /강진군 제공

## 영암군, 어르신 이용권 지원

영암군은 어르신들의 활동적이고 보람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노력 중 하나로 어르신 이용권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며, 이번 3분기에는 관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오천원권 기준 11대를 배부한다.

어르신 이용권은 처음에는 목욕권 지급으로 시작했지만,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과 건강증진을 위해 사용처를 이·미용권으로 확대했고, 올해에는 총 36대가 지급될 예정이다.

그리고 사용처는 관내 협약 목욕업소 및 이·미용업소이며 사용기한은 3분기 기준으로 2022년 12월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 “어르신이용권 사업은 어르신들의 청결한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는 특수복지 시책으로 크게 주목받고 있다.”라고 전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사용자의 편의성을 더욱 높이는 것은 물론, 다양한 맞춤형 실버 복지 정책을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유빈 기자

## 무안사랑상품권 특별할인 연말까지 연장

무안군(군수 김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과 주민들의 일상회복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무안사랑상품권의 10% 특별할인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연장기간은 이번달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개인당 상품권 구매 한도 또한 상반기와 동일하게 월 100만원(지류형·모바일형 합산)으로 운영한다.

군은 평상시 6% 이내의 할인율을 적용하지만, 최근 코로나19와 물가 상승에 따른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10% 특별할인 연장 운영을 결정했다.

무안군의 올해 상품권 발행규모(목표)는 약 1천억 원으로 상반기에 총 621억 원을 발행(국비 지원 발행 430억 포함)하고 490억 원을 판매하는 등 적극적인 상품권 발행과 유통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

지하고 있다.

또한 무안사랑상품권 가맹점 수는 총 3천621개소(2022년 6월말 기준)로 상품권 이용자의 편의 제고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남아산도시 등에서 가맹점 신규 등록을 적극 홍보해 지난해 대비 약 200여 곳 이상을 추가 등록했다.

지류형 상품권은 관내 43개 판매 대행점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모바일형(카드형 포함) 상품권은 지역사랑상품권 chak 모바일 앱 또는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대행점에서 구매(충전)가 가능하다.

김산 무안군수는 “이번 무안사랑상품권 특별할인 기간 연장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물가상승에 따른 서민경제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민재 기자

## 목포 산정연산지구 지적재조사 경계 결정

목포시가 산정연산 지적재조사지구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했다.

시는 실제 이용현황을 반영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완료한 경계설정에 관한 사항을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 833필지, 24만4천432.7㎡로 결정했다.

경계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경계결정통지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목포시 민원봉사실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시는 인접 토지소유자와 협의해 이의가 타당한 경우 경계를 재설정하고,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경계결정위원회의 재심을 거쳐 결정하게 된다.

시는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경계

를 확정하고,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과 등기 촉탁(정리)으로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사업 완료로 면적증감이 있는 토지는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정금 산정 심의를 거쳐 정산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정확한 토지정보로 이웃간 경계 분쟁, 재산권 행사의 불편과 제약 등이 해소될 것이다”고 말했다.

/박성태 기자

## 신안군 단호박 일본으로 금년으로 10년째 수출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2022년산 단호박 100톤을 일본으로 수출한다.

신안 단호박 일본수출은 지난 2013년부터 시작해 금년이 10년째이다.

올해 지도읍 및 하의·신의·장산작목반(40농가)과 수출 대행업체와의 600톤 계약재배를 통해 5억~6억의 농가 소득이 예상된다.

청정해역에서 해풍을 맞고 자란 단호박은 베타틴 A와 베타카로틴이 노화억제와 성인병을 예방해주고, 체지방 감소 및 대사질환 예방 등 웰빙식품으로 수요가 높다.

올해 신안군은 단호박 특화작목으로 육성하고자 종자, 멀칭비닐, 비료 및 시설지원 등 9천여만 원을 지원했다.

/장홍근 기자

## 함평군, 의병장 죽봉 김태원 충혼비 건립

호남의 대표 의병장 죽봉 김태원 선생을 추모하는 충혼비가 지난달 27일 함평공원에 재 건립됐다.

함평군은 김태원 의병장 순국 114주기를 맞아 선생의 의로운 넋을 기리고 자주정신을 드높이기 위해 충혼비 재건립 사업을 추진했다.

함평 군민들은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선생의 숭고한 애국

정신을 기리기 위해 함평공원에 선생의 충혼비를 세웠으며, 1993년 재 건립했다. 그러나 1993년 건립된 충혼비 비석의 기단 모양이 일제의 영향을 받은 데다 비문의 내용에도 오류가 있어 재건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군 관계자는 “호남 지역의 항일 의병을 이끌었던 선생을 기리는 충

혼비에 일제의 잔재가 남아있어 부끄러운 마음뿐이었다”며 “이번 충혼비 재건립으로 선생의 숭고한 항일 정신을 되새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태원 의병장은 1907년 호남창의회맹소 선봉장으로 나서며 호남지역 항일 운동을 이끌었다. 1908년 일본 기병의 기습으로 전사했으며, 1962년 그 공훈을 인정받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됐다.

/이문수 기자

